

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



무엇을 바꾸나요?

(현재) 2군 · 8구
'95년 확립

(개편) 2군 · 9구



왜 바꾸나요?



생활권 및 인구규모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+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



'95년도 이후 행정여건 급변,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
인구의 폭발적 증가 및 행정수요와 민원 폭증

* 주민등록인구 : 235만명('95) → 296만명('22.7월, 전국 5위), 61만명 증가(약 26%)

* *민원건수 : 5만건('16) → 53만건('19) → 110만건('21, 전국 3위)

* * *인천시 전체면적 : 994km²('05) → 1,063km²('19) → 1,066km²('21) (특·광역시 중 1위)



**27년 동안 유지한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늘어나는
행정수요 및 민원 대응에 미흡**

※ 관내 기초자치단체당 인구수 29.6만명 (10개 군·구 296만명)
(부산 : 20.8만*, 대전 28.8만, 광주 28.6만, 울산 22.2만)

* 16개 군·구, 333만

무엇이 좋아지나요?



합리적인 자치구 개편을 통해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여
시민 만족도 · 접근성 및 행정의 효율성 증진



미래지향적 개편 및 자치구별 특화정책 추진으로 지역 경제와 경쟁력 향상



성공적인 인천시 행정체제 구축을 통해 인천을 넘어 **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확대 추진**

※ 대구, 대전, 광주 등과 공동대응 추진



어떻게 바뀌나요?

중구(14만), 동구(6만) → (가칭)제물포구(10만명) / (가칭)영종구(10만명)

- 생활권에 따른 조정으로 행정 비효율성 제거 및 주민 불편 해소
- 제물포구 :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서 민선 8기
미래전략의 핵심지역
- 영종구 : 항공 · 해양 · 레저 산업 중심의 뉴홍콩시티중심지
경제구역 활성화에 따른
인구증가 예측



어떻게 바뀌나요?

서구(57만명) → 서구(38만명) / (가칭)검단구(19만명)

- 청라, 루원, 검단지역에 신도시개발에 따라 인구 70만명 이상 전망
- 서구의 면적은 118.5km²로 계양구, 부평구, 미추홀구를 합한 면적보다 넓음
- 검단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증가(10만명 이상) 예상되며 이미 자족기능을 갖춘



※향후 검토 과정에서 세부 조정 가능

어떻게 바뀌나요?

남동구(51만)

- 남동구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와 협의 후 추진 (추가검토대상)



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



‘26년도 지방선거를 개편된 체제에 따라 치르는 것이 목표

“시민여러분의 **공감대**가 최우선입니다.”

- 시민·지역정계와의 소통을 통해 **정책의제로 공론화**
- 지역사회 **공감대 형성**을 통해 **범 시민운동**으로 추진
 - ※ 향후 다른 자치구도 지역 여건변화와 주민 의견수렴하여 추가 검토

